



영국과 일본의 상반된 정치적 상황

1. 재점화 된 영국과 EU의 갈등

- 지난 주 영국은 EU와의 기존 합의를 부정하는 법안(국내시장법)을 발의. 또한 무역협상 체결시한을 10/15일로 선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양상
- 하드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주 파운드화의 가치는 급락
- 파운드화의 약세 압력은 달러지수의 상승과 신흥국 자산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되는 사안

2. 연중 최고치로 상승한 중국의 실물지표

- 유럽 내 정정불안은 달러지수의 기술적인 상승을 야기할 것이 자명. 그러나 신흥국에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신흥국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신흥국 통화 역시 강세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
- 전일 발표된 중국의 3대 실물지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연중 최고치로 상승. 14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한 철광석 가격 역시 중국 경기의 회복을 투영하는 움직임

3. 아베노믹스의 계승자

- 99대 총리로 낙점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16일 의회의 지명을 받아 취임할 예정. 스가 장관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아베의 계승자'
- 선거기간 아베 총리의 업적을 치하해왔던 스가 장관은, 당선 후에도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해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
- 정정불안이 해소되면서 일본의 금융시장은 엔화가 낙폭을 회복하는 등 안정을 되찾는 모습
- 중앙은행의 완화정책도 흔들림 없이 진행 중. BOJ는 9월에만 2535억엔 규모의 일본 지수연동 ETF를 매입

1. 재점화 된 영국과 EU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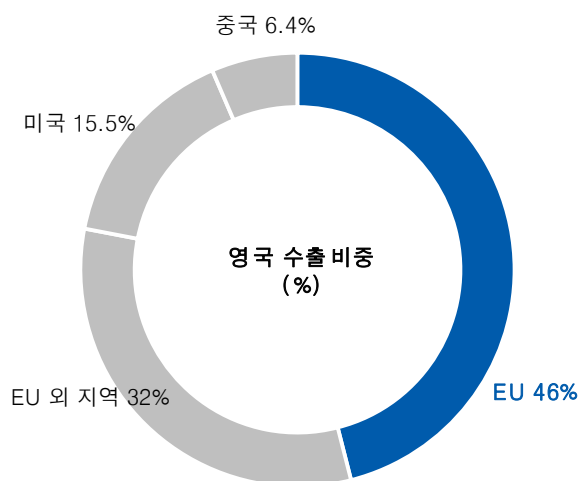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영국은 올해 1월말 이미 EU를 탈퇴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전환기간'이라는 명목으로 EU 구성원으로서의 혜택(무관세 교역, 이동의 자유 등)이 유지된다. 영국과 EU는 이 전환기간을 이용해 무역정책과 안보, 사법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합의기한이 다가오면서 서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존슨 총리는 EU와의 무역협상 체결시한을 10/15일로 선포했고, 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하드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9일 영국 정부는 기존 EU와의 합의내용을 부정하는 '국내시장법'을 발의했는데, 최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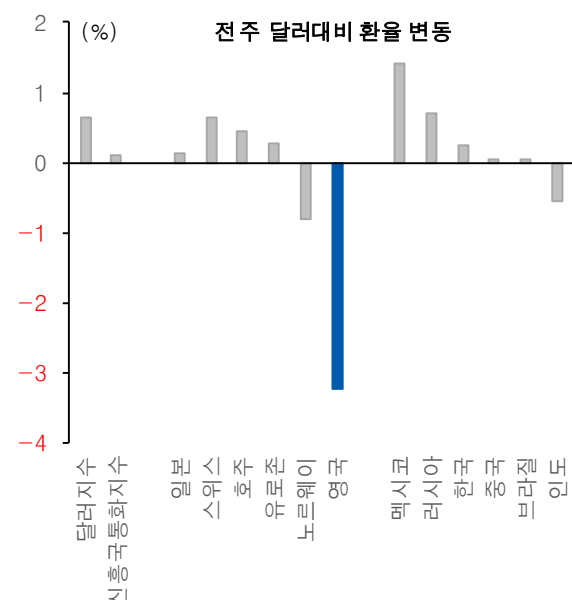
올해 초 영국과 EU는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신규 발의한 국내시장법은 (EU와의 무역협상에 실패할 경우) 북아일랜드의 관세 규칙을 자국이 임의로 결정하겠다는 법안이다. 이는 기존의 협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향후 양 진영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 평가되고 있다.

하드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주 달러/파운드 환율은 -3.2% 하락(파운드화 약세)했다. 전세계 36개 주요 통화 중 가장 부진한 흐름이었다.

[차트1] 무역협상 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EU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영국



[차트2] 하드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주 파운드화의 가치는 달러대비 3.2% 이상 급락



주: 환율은 모두 상승 시 강세, 하락 시 약세로 표현.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연중 최고치로 상승한 중국의 실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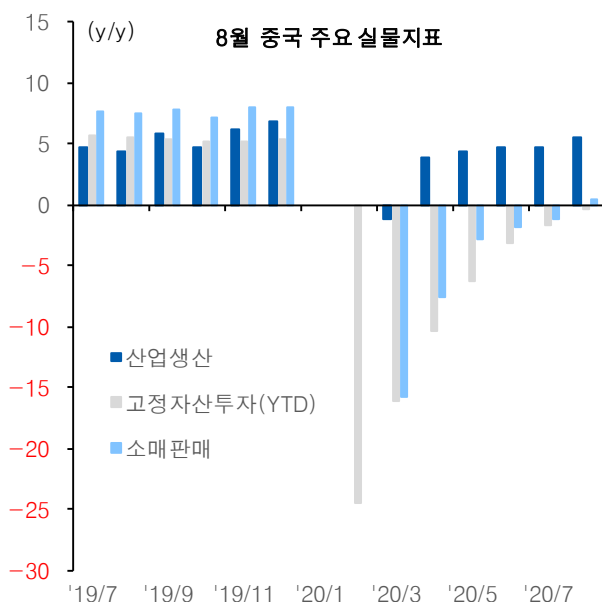
파운드화는 달러지수 내 12%의 비중을 차지하는 통화다. 하드브렉시트로 인한 파운드화의 약세 압력은 자연히 달러지수의 상승과 신흥국 자산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유럽 내 정정불안은 달러지수의 기술적인 상승을 야기하겠지만, 신흥국에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신흥국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신흥국 통화 역시 강세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 MSCI 신흥국 통화지수는 달러강세에도 불구하고 +0.1% 상승(강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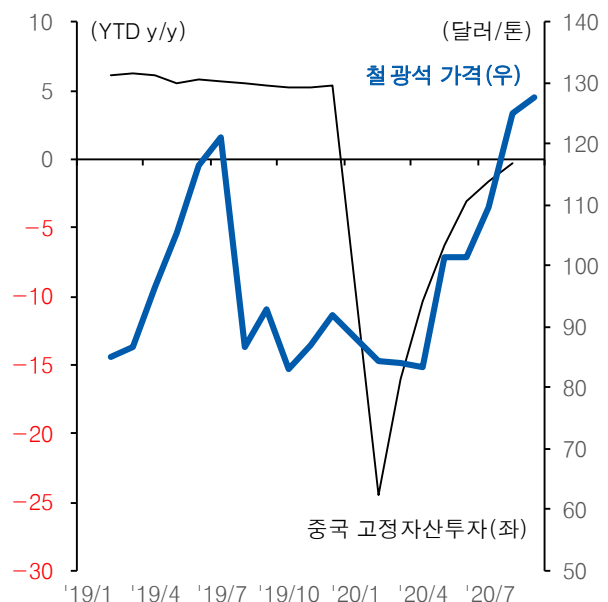
전일 발표된 중국의 3대 실물지표는 8월 동반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매판매(+0.5% y/y)와 산업생산(+5.6), 고정자산투자(-0.3) 증감률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연중 최고치로 상승했다. 최근 소비심리 등 일부 지표의 회복세가 둔화된 미국과는 다른 양상이다.

중국의 경기회복은 돋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철광석 가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양회에서 밝힌 재정지출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14일 철광석 가격은 14년초 이후 최고치(127.5달러/톤)로 상승했다. 이로써 철광석의 연초대비 수익률은 +35.3%로 확대되었는데, 올해 주목받았던 금의 수익률(+28.1%)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차트3] 연중 최고치로 상승한 중국의 주요 실물지표. 산업 생산에 이어 소매판매도 8월 플러스 전환



[차트4] 중국의 투자활동이 회복되면서 철광석 가격은 약 6년만에 최고치로 상승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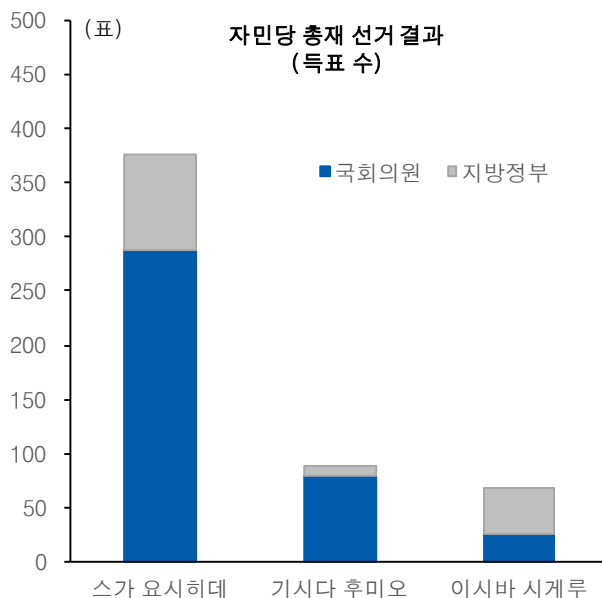
3. 아베노믹스의 계승자

역시 아베 총리의 사퇴라는 정치 이슈가 있었던 일본에서는 14일 후임 총리가 결정됐다. 제 99대 총리로 낙점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16일 의회의 지명을 받아 취임할 예정이며, 기존 아베 총리의 임기인 21년 9월까지 직을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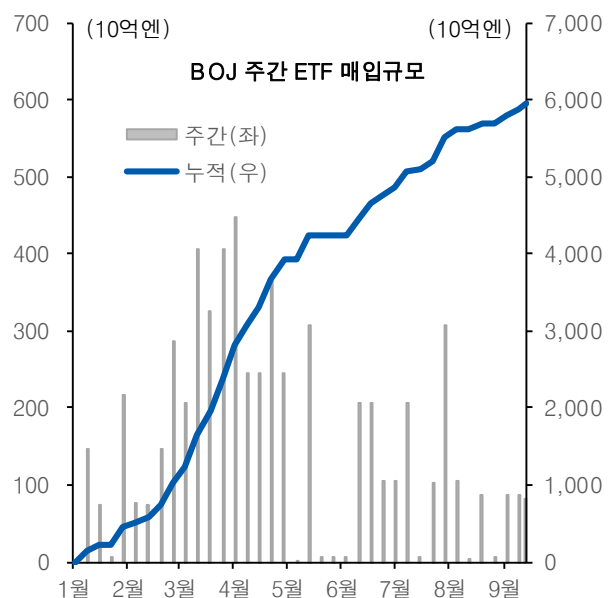
스가 장관은 이번에 치러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70.5%의 득표율을 올려 당내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 21년 진행될 차기 총재 선거에서도 연임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스가 장관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아베의 계승자'다. 스가 장관은 월초 자민당 총재 출마 선언 후 줄곧 아베 총리의 업적을 치하해왔고, 당선 후 소감을 통해서도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해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급작스러웠던 정정불안이 해소되면서 일본의 금융시장은 엔화가 낙폭을 회복하는 등 안정을 되찾고 있다. BOJ의 차별화된 자산매입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중 유일하게 증시 ETF를 매입(연간 12조엔 매입 목표)하고 있는 BOJ는 9월에만 2535억엔 규모의 지수연동 ETF를 매입했다. 당사는 BOJ의 이러한 직접적인 증시부양책이 17년에도 분명한 효과를 봤던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차트5] 자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스가 신임 총재. 아베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당선 소감 발표



[차트6] 꾸준히 지수 ETF를 매입하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 행정부의 지지는 지속될 전망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